

대구광역시 **News** end

# 이철우 경북지사, 이민정책 큰 밑그림 그린다

관련기사 2·3·4면

이철우 경북지사가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경북도를 만든다.  
 인구정책 유입에 따른 사실상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인 셈이다.  
 이 지사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 주도 이민정책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경북은 면적이 제일 넓고 농업 생산량이 높았다.  
 경북은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부터 1940년까지 한반도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였다.



한판볼자

2월 26일(월)  
경주신라  
컨트리클럽



2024 제 10 회  
대구광역시보배  
전국아마골프대회

D-11

##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 1980년 경북 인구 495만4천명 지금은 240만3천명

쪼그란 든 '경북' 인구  
위기극복 새로운 대안  
그것이 바로 이민정책

경북 인구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살얼음이 얼 듯 얼었다. 인구가 줄면서 수북했던 곳간도 텅텅 비워졌다. 1980년 495만4559명을 자랑하던 경북 인구는 25년만에 240만3189명이 줄어들었다. 2024년 1월 현재 255만1370명이다.

### ■ 쪼그라든 경북인구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자 인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이민정책이다.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64세의 인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에 0.78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0.68명으로 예상, 총인구수는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망대로라면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0년엔 46.1%로 줄어들게 된다. 분단 이후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고, 군사정권 시기 경부축 중심의 개발이 되면서 경북 남부는 인구가 늘었다. 경북 북부는 인구가 계속 감소했다. 1981년 7월1일 경북의 인구가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됐다. 심지어 경남도에 인구 역전을 당하고 현재까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도 중에서는 경기, 경남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다. 시 단위 행정구역까지 포함하면 경기, 서울시, 부산시, 경남, 인천, 경북 순서이다. 지방 대부분이 그렇지만 21세기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때 경북의 인구 성장세를 이끌었던 포항, 구미는 물론 대구의 인구 유입으로 성장해왔던 경산, 칠곡과 한때 경북도청 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기대를 많이 받았던 예천과 김천조차도 인구 유입에 한계가 다다른 상태이다.

### ■ 경북 1도시 포항 인구 붕괴

경북에서 유일한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인 포항은 2022년 7월 50만 선이 깨졌다. 구미도 2000년대 후반기 이후 LG디스플레이 공장의 생산량 감소, 삼성 휴대폰의 해외 생산량 증가 등의 이유로 계속되는 산업 침체로 인해 머지않아 인구 40만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처지이다. 공공기관 이전 외에는 별다른 호재가 없어 더 이상 인구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천, 김천도 사정은 별다를 바 없다. 기초자치단체 하위 인구수 1, 2위가 모두 경북도에 있다. 도시지역인 울릉군과 육지 지자체 중 최소인구인 영양이다. 이들 외에도 의성, 청송, 봉화, 청도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 옆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도 지역과 비슷하게 인구의 지역 편차가 매우 심한데, 경북 전체 면적의 1/3 가량(면적의 30.8%)인 경부축 및 동해 남부 지역 7개 시군(김천, 구미, 칠곡, 경산, 영천, 경주, 포항)에 전체 인구의 2/3 가가이 살고 있다. (2020년 2월 기준 63.4%) 그나마 비교적 규모가 작은 영천과 김천마저 빼면 면적 20%에 인구 54.3%가 살고 있는 것이다.

### ■ 인구소멸지역 경북 4곳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소멸위기



에 처해 있는 지역은 228개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위험 수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51개 지역은 가장 위험한 소멸고위험 지역에 속한다. 바로 아래 소멸위험진입단계(4단계)로 분류된 곳은 67곳으로 나타났다. 상위 단계에 이미 118개 지역이 진입한 것이다. 3단계인 주의단계는 93개 지역에 적용됐다. 이 자료는 각 지역의 20~39세 여성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계산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보다 많을 수

록 소멸위험지수는 높아진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을 얘기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미 실제로 도래한 것”이라며 “복잡한 통계를 동원할 것도 없다.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도 적지만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사실 지역 공동체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곳들이 실제로 많다.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초등학교가 줄줄이 폐교되는데 심지어 대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멸이라는 게 꼭 인구가 0명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100명이 살던 곳에서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

만 살고 있으면, 또 사람이 살더라도 그 안에 마을이나 공동체로서 갖춰야 할 기반 인프라가 없으면 그게 소멸이 아닌 소멸이 아니다. 현재 4, 5단계인 소멸위험지역에 속하면서 가장 위기감이 높은 인구 3만명 이하 지역은 △경북 군위·청송·영양·울릉 △강원도 양양·고성·화천·양구 △전북 임실·장수·진안·무주·순창 △전남 구례·곡성·진도 △경남 의령 △충북 단양 △인천 옹진군 등 19곳이다. 영양군은 1만5931명, 울릉군은 8986명 등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절벽 현상은 지역의 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발전이 더디게 되고, 주민들은 다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지역으로 이탈하려는 심리가 더 커진다. 최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소

멸 시점은 2047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멸위기 지역의 출산율과 사망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소멸위기 지역의 거주 인구가 다 사라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다. 그때가 불과 20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다.

### ■ 지방소멸 국가소멸

언제부터인가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종종 들린다. 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지속 둔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피크 코리아에는 여러 근거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73으로 예상돼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방 소멸과 국가 소멸이 우려된다.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년 뒤에는 대전 규모의 인구가 소멸한다. 40년 뒤에는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71.1%에서 2050년 51.9%까지 감소한다. 인구 절벽의 쓰나미는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인력난 이슈이다. 그나마 있는 인력조차 수도권을 선호해 지역 기업은 더욱 어렵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인력 공급을 작년보다 35.7% 증가한 16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인구 감소는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기업은 매출의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사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미 유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급격히 축소되고 실버산업 등이 호황을 누리는 변화를 실험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 인구유입 대안은 이민정책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민정책을 대안카드로 꺼냈다. 지난 2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앞서 이민정책을 추진했던 해외 국가들의 상황을 검토,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4월 법무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여기에서 외국인 정책을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민정책을 체계·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할 전담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와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통해 2021년 이주배경인구는 213만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323만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정책은 우수 인재와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2023년 8월 기준) 51만 4445명 중 전문인력 비율은 12.4%(6만 3850명)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시행해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 거주, 영주, 국적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우수인재 외에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용 기자

# 이철우가 꿈꾸는 인구정책 외국인 도민 만들기...

##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 선포 경북글로벌 학당 개소 현판식 외국인 지역 스며드는 따뜻한 지방사회목표 외국인정책추진

경북도가 외국인 도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14일 경북도립대학교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하는 현판식이다.

현판식에 이철우 경북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박선하 도의원, 도기욱 도의원, 대학교 총장,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 명이 모였다.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필수라는 인식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말을 사용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외국인의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글로벌 학당으로 경북을 찾는 유학생들이 경북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정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에서부터 정착까지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따뜻한 상상·포용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 ■ 이민정책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

도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북 글로벌 학당을 신설했다.

사업은 외국인 수요와 경상북도 외국인 정착 기초가 정확하게 맞물려 실행됐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들이 이민 초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로 나타났다.

도는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을 선포했다.

외국인이 지역에 스며드는 따뜻한 지방사회를 목표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총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에게 교육을 한다.

유학생 교육과정(2주간)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1일)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토익, 외국인 정책, 법제도, 생활정보 문화·산업·경제·정주 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 산업현장도 방문한다.

학당 개소를 기념,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국에서 펼치는 꿈’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문화(K-pop, K-food), 경북의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운동), 경북의 산업 현황(반도체, 로봇 등)과 문화자원, 외국인 정책 등에 관해 유학생들에게 특강했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를 위해 경북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경북도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학당의 체계와 기틀 마련을 위해 대학의 풍부한 교육 비법이 필수라는 이유였다.

도는 앞으로 교육과정 확대 및 다변화, 수요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및 사회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는 경북 글로벌 학당의 정체·차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 모델로 선도해 나간다.

### ■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정책 대안

지역특화형 비자가 지방의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거주·취업·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력에게 광역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자체·지역 기업·외국인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법무부는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쿼터 3291명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배정했다.

지난해 1500명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26개에서 음식·서비스업, 방문 보건업을 추가해 29개로 늘렸다.

대상 지자체도 지난해 9개 시도 28개 시군에

서 10개 시도 6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범 사업 추진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 지자체가 크게 늘었다.

지자체마다 산업 구조,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인제 규모와 조건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

올해 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는 경북도가 지난해 290명에서 700명으로 2.4배이다.

지자체들이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이 가능해 이탈률도 낮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총선 공약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해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북도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정착을 도모해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해법을 찾는다.

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도내 인구감소시군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 지역우수인재와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지역별 산업수요에 맞는 필수 외국인력 매칭을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잡식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생산·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전담조직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중심으로 각 시군 전담부서와 시군별 지역특화비자 TF팀을 꾸리고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각 시군 지역주민 및 직장 내 내국인들의 외국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희망이음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외국인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기반시설도 하나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통수단 역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인구감소와 정장년 인구 유출과 주민 고령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4년 추진해야 할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농촌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2022년 기준 농촌 고령화율은 26.1%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강원 양양군, 충북 괴산군 등 총 89곳으로 이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에 따른 위기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일찍이 지자체 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인구소멸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고자 경북에 시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인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 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700명 쿼터 확정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다.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한다.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 정규화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이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회통합계획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개 광역자치단체 6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정규화 사업에서 도는 ‘경북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북도의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최다 15개 시·군이 사

지난달 17일 문을 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에 따른 유지업무추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연계 위한 취업박람회, 구직자-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서류작성 안내 및 검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정규화를 시행해 준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많은 지역이 선정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과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외국인들도 우리와 동등한 주민이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 지역에 정착해 건전한 주민으로서 도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 ■ 경북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성공

인구감소와 정장년 인구 유출, 주민 고령화 심화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촌 내 젊은 층이 떠나면서 지방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지방에 인구가 줄면서 병원이나 약국 등 생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목적이다.

올해 도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군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경북에는 438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다.

경북의 외국인 주민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10만 4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87명(6.5% 증)이 늘어났다.

구자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수도권 출몰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으로 선이 제도 도입으로 대학 입학 지원 확보, 생활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경북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포함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 각각 50억 원씩의 국비를 지원한다.

경북,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등 7개 도와 부산, 대구 등 2개 광역시가 대상이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

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미래 인적 자원 확보’와 ‘활동 주체 양성’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당연한 농촌 현안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농촌형 경제활동 육성과 서비스 개선, 인적 자원 확충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한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등 농촌형 경제 육성을 지원해 관련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내다봤다.

### ■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대구 수성알파시티 선정

국토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인 도 7곳(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과 광역시 2곳(부산·대구) 총 9개 광역지자체(85개 기초)에서 각 1건씩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반복적 방문을 유도한다.

통계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생활인구를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따라 올해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되어 증거 기반의 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된다.

일례로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눈다.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이 나오면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7일 올해 총 56개의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은 전반기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지방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접목, 첨단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위한 거점 이자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이미 대구 수성알파시티, 부산 센텀시티 2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 초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도 시범지역 2곳을 추가 선정,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김성용 기자



경주 화랑마을 중·고 학교장 초청 팸투어 운영

경주 화랑마을이 이용객 유치와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교장을 초청, 팸투어를 가졌다. 지난 13일 화랑마을 내에서 진행된 팸투어는

지역 내 40여명의 학교장과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장학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화랑마을을 소개하고 홍보영상 상영, 관내 중·고등 학교장들의 내부 회의를 거쳐

화랑마을전체 시설 견학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팸투어에 참석한 화랑중학교 신봉자 교장은 "최신화된 시설에서 오는 쾌적함과 곳곳에 스며있는 호연지기를 품은 웅장함이 공존하는 화랑마을은 경주 최고의 시설인 만큼 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경주는 나들이객들 구름인파... 39만여 명 발길

지난해 설 연휴 보다 55.4% 증가  
황리단길 전체방문객 61.2% 차지

설 연휴기간 동안 경주 곳곳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난 9~12일까지 경주 주요 관광지에서 1일 평균 9만7천여 명, 총 38만8157명이 다녀갔다.

세부적으로는 △황리단길 23만7786명 △대릉원 3만5511명 △봉황대 1만2017명 △첨성대 2만5915명 △불국사 7만6928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1.21.~1.24) 동일 관광지 방문객 수 24만9795명을 비교하면 5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리단길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전체 방문객의 61.2%를 차지할 만큼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가 됐다.

지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황리단길을 비롯해 인근에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월지, 교촌마을 등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 매력에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 다양한 문화행사도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동궁원에서는 이틀 간 대금산조공연과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의 민속놀이 체험을 제공



했다. 보문관광단지 호반관광에서는 '복(福)작 복(福)작 보문관광단지' 행사를 열어 통기타·트로트·국악 등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다.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경품 이벤트, 마술 및

댄스 등의 버스킹 공연, 민속놀이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두근두근! 새해 신라왕' 이벤트를 준비해 전시실 연계체험, 행운카드 만들기, 인생네컷,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펼쳐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주차를 허용해 방문객들이 중심상가와 전통시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제 경주는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국내 관광 1번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물론 경주ON, 세계질 축제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올해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 유치

연말까지 5차례 300명 입국 예정  
농가 수요인원 100% 입국 성과

지난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는 경주시가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또는 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인 124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고 14일 밝혔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첫 입국자 124명 중 44명은 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참여한 외국인 가운데 성실근로자로 선발했다. 이들 44명은 5개월 간의 체류자격이 부여됐고, 나머지 80명은 신규 계절근로자로 90일 간의 체류자격이 부여됐다. 올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틀에 걸쳐 입국했다. 이후 범죄예방과 이탈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 61곳의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각각 4월 26일까지, 6

월 24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며 토마토, 딸기, 멜론, 부추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는 이번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는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인 300여 명을 유치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 수수료 △마약 검사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계절근로자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해 205명을 유치했고, 무단이탈률 0%, 농가 수요인원 100% 입국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2025 APEC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간담회

신년 간담회...공모절차  
대응 및 유치 여건점검



경주시가 새해를 맞아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성공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정보교류를 통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3일 '2025 APEC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박몽룡)'와 신년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곧 있을 정부 공모절차 대응 방안과 유치 여건 및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박몽룡 위원장, 이상길 경주상공회의소장, 조철제 경주문화원장, 이동진 경주시이동장연합회장, 손지익 경주시새마을회장,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 정재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범시민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개최도시 선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치신청서 작성을 비롯한 공모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회의 및 숙박 등 유치 여건과 함께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우리 경주가 보유한 숙박 현황은 총 1,846개소 16,838실로, 특히 정상회의가 열릴 보문단지 반경 3km 내 103개소 4,463실이 집중하고 있어 지난해 2006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정부대표단 수요 대비 157%에 해당하는 충분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정부 공모절차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도 각 소속 단체가 주도적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해 낼 것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의 확고한 유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한수원, 2024 시즌 유니폼 공개

무한한 동력 표현 선수들  
경기장서 역동적인 모습

K3, WK리그를 함께 운영 중인 경주한수원이 올 시즌 경기장에 입고 될 2024년 유니폼을 공

개했다. 2024년 유니폼은 지난해 푸마와의 후원 협약 이후 두 번째 선보이는 유니폼으로 머천다이징 전문 업체인 ㈜PLAC과 협업하여 남·여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 제작했다. 홈 유니폼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이자 경주한

수원의 메인스폰서인 "한국수력원자력"을 모티브로 삼았다. 유니폼 앞면에는 국내 전력의 30%를 생산하는 원자력을 패턴화한 이미지를 담았다. 유니폼 뒷면 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CI를 삼입, 무한한 동력을 표현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원정 유니폼은 연고지인 "경주"를 모티브로 삼았다.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오도창 영양군수는 15일 오전 수비면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24년 수비면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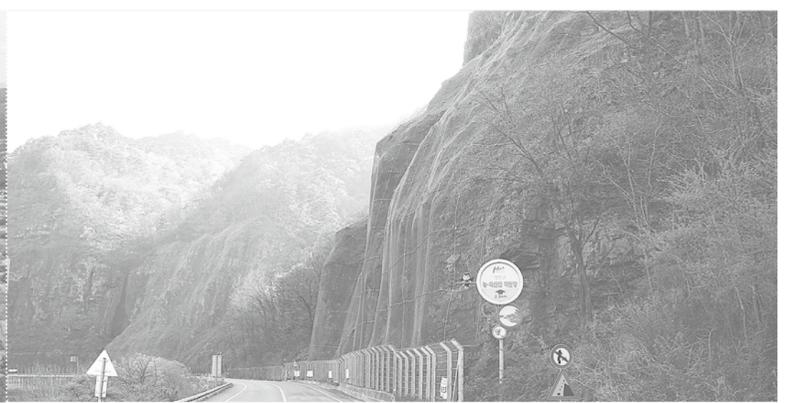
## 영덕군 유림단체 2024 신년 인사회

영덕군 청년유도회는 회원들의 유대를 증진하고 유림지도자들의 유교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3일 영덕향교 유림회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과 김성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윤인한 영덕교육장, 관병윤 영해향교 전교 등의 기관단체장들을 포함해 유림단체 임원과 회원 120여 명이 함께했다. 김생기 영덕군청년유도회장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여은 기자



## 영덕군,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영덕군은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퇴직 중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1974년생의 만 50세 이상부터 1959년생인 만 65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 분야 경력 1년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총 4명이다. 복지사 각 2대 발굴 및 지원,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 고독사 및 사회 고립가구 지원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여은 기자



# 영양군, 2024년 교통 영양의 원년으로...

##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접근성 증대 군민 의료공백 해소에도 도움 기대

영양군은 2024년을 교통영양의 원년으로 삼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 초기 착공비 10억 원을 확보해 도로상황 개선에 힘쓰고 있다. 도로 여건상 열악한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군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입암~영양 구간 상습 낙석구간, 도로 침수구간 5.43km 선형개량사업(5년간 총 사업비 920억원)의 초기 착공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지역 80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영양군민 통곡위원회'를 만들어 군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민과 관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 사례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군은 영양진입 구간 터널화와 영양읍 관문도로 4차선 개설사업 등 내부 교통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 9축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관계 시군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영양군을 통하는 혈관인 도로 상황이 개선되면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접근성 증대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를 교통 영양의 원년으로 삼아 사통팔달의 교통로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변화와 함께 군민의 생활 편의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개혁으로, 향후 최고로 빛나는 한 해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500여 명의 공직자가 힘내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 울릉군, 2024년 청소년 스키캠프 실시

## 코로나19로 중단, 4년만에 재개 관내 초·중·고, 중등1 대상

울릉군은 관내 초·중·고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키캠프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스키장에서 실시한다. 1·2차에 걸쳐 실시하는 스키캠프는 1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등 1학년 20명, 2차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초·중 6학년 22명이 참가한다.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5회에 걸쳐 진

행했던 스키캠프는 지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 다 올해부터 재개됐다. 수혜를 받지 못했던 중등 1학년, 초·중 6학년 학생들이 이번 스키캠프 대상자로 선정됐다. 스키캠프 프로그램은 육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울릉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보다 넓은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스키캠프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체력 함양과 공동체 생활을



통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키워 바르고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 청도소방서, 음식물 조리 시 부주의의 인화 화재주의 당부

청도소방서는 음식물 조리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분석한 결과, 저녁 시간대인 18시~20시에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의 경우 발화점이 높아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잘 되지 않음뿐더러, 물을 부으면 화재의 크기를 오히려 키우기 때문에 주방용(K급)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주방 후드와 닥트의 주기적인 청소 △화기 취급 주변 가연물 적치 금지 △가스밸브 타이머 설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청도소방서는 음식물 조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캠페인 및 언론·SNS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윤철 청도소방서장은 "음식물 조리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식사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꼭 설치해서 화재 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AI 스마트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청송군 치매안심센터 청송군치매안심센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치매 돌봄 지원사업을 2월부터 30가구로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가 치매환자 10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스피커 무료 대여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용자들의 인지도, 우울감 호전 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이 매우 만족한다는 성과를 거둬 확대 운영하게 됐다. 'AI 스마트 돌봄서비스'는 복약알림과 인지활동, 감성대화 나누기, 종교생활·날씨·뉴스·라디오 등 생활정보 제공, 응급상황 SOS 요청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 '아리아'를 활용해 365일, 24시간 동안 비대면 안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방법은 대상자가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를 향해 요구사항을 말하면 스피커가 초록색 불빛으로 반응 후 대답과 함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간단한 음성명령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치매어르신도 쉽게 사용 가능하며, 시간 제약 없이 가정 내에서 24시간 동안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윤병문 기자

## 2024년 제1차 의원간담회 개최

청송군의회 청송군의회는 지난 13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사회복지과)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사회복지과) △민예촌 운영 재우탁 추진(관광정책과)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농촌활력과) △청송군-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MOU(업무협약) 체결(농촌활력과)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권태준 의장은 민예촌 운영에 대해 "고향을 방문했거나 지인이나 친구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군민이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리 공룡 발자국 앞 도로가 위험하니 참고하여 건설과장과 의논해 보길 부탁하며, 안덕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구입비를 다음 추경에 반영 부탁드린다"며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윤병문 기자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매칠 뚝오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생기는  
영양으로 오세요

**길**

다산·한양·안동·영양  
다산·한양·안동·영양  
다산·한양·안동·영양

**빛**

영양·영양·영양  
영양·영양·영양  
영양·영양·영양

**맛**

영양·영양·영양  
영양·영양·영양  
영양·영양·영양

**심**

영양·영양·영양  
영양·영양·영양  
영양·영양·영양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 영양의 자연, 일출선, 선바위의 남이모, 삼의계곡, 수해계곡, 분신계곡, 천변곡원, 천박수원, 외씨나선길
- 영양의 역사, 을사늑약, 서석지, 두물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반도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보전사당, 알뜰시장상화공원, 영양공예박물관, 흥림산자연휴양림, 안영산생생물박물관, 분사수사생화전시관

###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15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2회 영천한약축제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5일 오후 영주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영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이 취임식에 참석한다.



### 영천 한돈 청년분과위원회 이웃돕기 성금500만원 기탁

영천 한돈 청년분과위원회가 14일 '나눔 축산' 실천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영천시에 기탁했다.

영천 한돈 청년분과위원회는 지역 한돈 협회 회원 중 2세 경영인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설립 이래 매년 연탄기부 행사 및 성금 기탁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최근 사료값 상승, 한돈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더욱 의미가 있다.

김상식 회장은 "한돈을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시민들의 사랑에 적극 보답하고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주시는 영천 한돈 청년분과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영천시에서도 한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의성군, 7일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

의성군은 가로등 관리의 현대화 및 스마트 시티 전환을 위해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가로등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CCTV, 날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전, 정전, 램프 불량 등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다.

군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 통행 위험 구간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조사해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 영주시, 연초부터 뇌 건강 지키기에 앞장

### 다양한 치매예방사업 추진 14일~3월 11일, 주2회

영주시는 연초부터 더욱 다양한 치매예방사업으로 시민들의 뇌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치매예방교실 '두근두근 뇌운동! 뇌 맑은 청춘교실'을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매주 2회(월, 수) 운영한다.

이번 치매예방교실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를 위한 △두뇌건강놀이 △치매예방체조 △레크레이션 △원예 △인지자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 6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오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치매예방교실은 대상자들의 치매 발병위험을 낮추고 발병 시기를 늦추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 저하자 및 노년층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치매예방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는 치매예방교실 뿐만 아니라 인지재활(씰터) 프로그램을, 하반기



에는 치매보듬마을과 연계해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올해 치매 환자, 치매 고위험군, 환

자 보호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매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해 치매 걱정 없는 영주시 만들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54-639-5738)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 의성군,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재해예방

### 저수지 642개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 평가의 객관성 향상

의성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저수지 64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점검은 저수지 제방과 물넘이 시설, 취

수시설 등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저수지별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등 시설물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봄가뭄에 대비 저수율 조사 및 자동수위 측정장치(구룡지 외 112개소에 대해 점검 후) 작동 시설에 대해 일괄 정비한다.

저수지 보수공사 및 준설로 인한 저수지 방류와 사유없이 저수량이 적은 곳이나 급격히 저수

량이 감소한 저수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저수지 보수수원공을 통해 담수하는 등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점검결과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은 긴급 조치토록 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정비계획 및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는 등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 봉화군의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최

### 올해 첫 의정활동 시작... 14일부터 22일까지 열려

봉화군의의회는 14일 제262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안 안전 처리 등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취, 15일부터 22일까지는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은 상정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2회 봉화군의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김상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군정의 기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봉화군의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 영천시, 나누는 기쁨, 커가는 인재

### 영천유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윤기 영천시장학회 100만원 장학금 기탁

영천시민의 인재양성 의지가 장학금 기탁으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자양면새마을회에서 100만원, 영천유영농조합법인인 김윤기 대표가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자양면새마을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 생기 넘치고 살기 좋은 공동체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영천의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져 이번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한기범 협의회장, 이선옥 부녀회장은 "새마을정신은 결국 우리가 함께 노력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미래의 주인이 될 인재를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영천유영농조합법인은 화산면에 소재한 조사료 생산 및 수확, 곤포사일리지 제조 대행 및 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년~2022년 경북 동계작물 사일리지 품평회에서 연속으로 우수상(1위)을 수상할 만큼 양질의 사료작물 사일리지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개선 등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기문 이사장은 "소중하고 값진 장학금 기탁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최은하 기자

## 영주시, 쾌적한 가로경관 위한 '봄맞이 가로수 정비'

### 3월 말까지, 14개 구간 2800여 본 가지치기 진행

영주시가 봄맞이 가로수 정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경관 조성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가로수의 생육 환경개선과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영주역·서천교 등 14개 구간 가로수 1800여 본의 가지치기 작업을 14일 시작해 3월 말까지 실시한다.

가지치기 작업은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와 배전선로 등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생활의 불편발생이 우려되거나 수형이 불량해 가로경관 개선이 필요한 가로수에 중점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돈된 가로경관으로 심미적·정서적 안정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가지치기 작업 기간 중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박상철 공원관리과장은 "이번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초점을 맞춘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나는 솔로, '상주시' 사랑에 빠지다



상주시가 제작지원한 ENA, SBS Plu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19기가 14일

(수)부터 방송된다. ENA,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 12명이 가상의 '솔로나라'에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지속적인 인기와 화제성 속에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다.

14일 저녁 10시 30분부터 ENA, SBS Plus에서 방송되는 '나는 SOLO' 19기는 여러 드라마와 시사·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하게 인지도를 높여온 상주시에서 제작지원하여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랑을 찾는 출연자들의 솔직하고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상주시의 훌륭한 풍경과 우수 농특산물 등 다양한 매력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의 관광명소, 농특산물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SOLO'를 통해 더욱더 알려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출연자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와 함께 따스하고 정감 있는 상주시의 풍경이 아름답게 방영되어 관광객의 방문과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요청이 쇄도하는 상주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NA,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한다. 이경호 기자



### 성주군, 찾아가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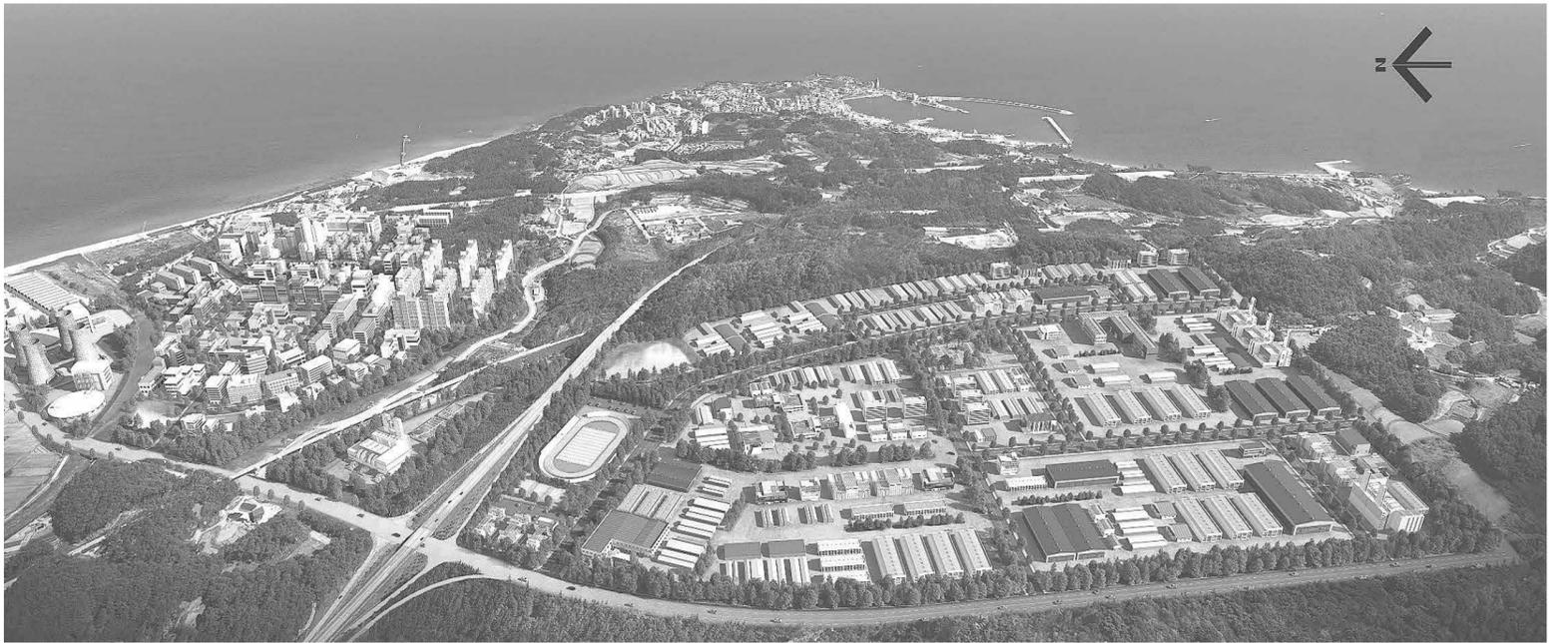
성주군가족센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비를 11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도움과 준비물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각 가정에 맞게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이용대금을 전액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성주군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물론 다함께 돌봄센터 1·2호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월기 관인 성주군가족센터 054-982-9815,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 (www.bokjiro.go.kr)로 하면 된다. 도재훈 기자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청신호

###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울진군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건설에 청신호가 쬐졌다.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예비타당성 조사(반도체)를 제외한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울진(원자력수소)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발표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에서 울진군이 지정되는 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9개의 앵커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7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단 조성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울진 국가산단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 그만큼 국가산단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앞으로 무탄소 원전 전력과 청정수소가 풍부한 울진군의 강점을 살려 기업들이 탄소중립시대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경수 기자

## 칠곡할매래퍼... 'K-할매' 되나?...

###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외신 주목

국내에서 칠곡군 할매 합합 그룹 열풍이 이어지며 세계 주요 외신도 주목하고 나섰다.

세계적 통신사인 로이터(Reuters) 등의 외신 취재가 잇따르며 칠곡군 할매래퍼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알려질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3일 김재욱 칠곡군수 인터뷰와 함께 칠곡군 지원면 신4리에 사는 평균 연령 85세 할매니로 구성된 수니와 칠곡주관련 기사와 영상을 공개했다.

1851년에 창간된 로이터 통신은 AP, AFP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뉴스 통신사로 뽑힌다. 150개국 230개 도시에 지국이 있으며 19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제공한 기사와 영상을 통해 칠



곡할매래퍼가 전 세계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소개된다.

로이터 통신에 이어 다른 주요 외신도 수니와 칠곡주 등 칠곡할매래퍼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칠곡군에는 8인조 수니와 칠곡주와 보람할매연극단을 비롯해 우리는 청춘이다, 아껴둬 등 할매래퍼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15인조로 구성된 뒷발 왕인니도 내달로 예정된 창간식과 축하 공연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칠곡할매래퍼를 'K-할매'라고 부르며 칠곡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고령층을 대상으로 칠곡군 할매니들의 래퍼 활동 확산에 나섰다.

대구가톨릭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권장원 교수는 "로이터와 같은 세계적인 통신사가 한국 할매니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의미가 크다"라며 "세계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K-POP처럼 칠곡군 할매니들이 K-할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욱 군수는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할매래퍼 활동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고령층 문화를 선도하며 지역 성장 기반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 경산 시티투어... 내일이 기대된다

경산시는 경산 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부림관광(주)(대표 권순홍)과 지난 13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내외국인에게 알리고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관광도시를 위한 시티투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사람 중심 문화도시로의 발돋움과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뜻을 모았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시작될 경산 시티투어 정기 코스는 매일 둘째 주 목요일 출발하는 갖바위 일원의 소원성취 투어와 넷째 주 토요일 반곡지 일원의 삼성현 명품 투어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벚꽃길 명소 투어 등 특색 있는 월별 테마 코스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도입 운영 중인 시티투어는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시가 가진 핵심 관광자원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내년 자체 차량 확보 등 관광도시를 향한 전면전을 펼칠 예정이다. 신경운 기자



##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

### 5개읍면 소음대책지역 주민대상 전년도분 보상금 지급

예천군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낱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난해 5,106명이 약 18억7천3백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 하회별신굿탈놀이,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에서 흥겨운 마당 펼쳐

### 산마르코 광장에서 전 세계 관광객 매료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맞아 더욱 큰 의미

안동시의 세계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에서 안동이 자랑하는 세계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단은 지난 13일 산마르코 광장에서 신명나는 공연으로 전 세계인과 함께 흥겨운 마당을 열었다.

각국의 관광객들은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풍자와 해학의 묘미에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매년 사순절을 앞두고 10여 일간 펼쳐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는 이탈리아의 가면을 중심으로 화려한 퍼레이드와 경연을 선보이는 대표 축제다.

2024년은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단의 이번 공연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총 10개 마당 중 4개 마당을 선보인 하회별

신굿탈놀이는 한국 고유의 흥을 한껏 발산하며 모여든 관객들을 금세 매료시켜 열렬한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태평소 소리와 함께 신내림을 받은 각시광대가 무동을 타는 무동마당을 시작으로, 주지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을 통해 관객들과 함께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어깨춤을 추고 호흡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공연무대 옆 부스에서는 안동시 관광홍보 책자를 나눠주고 하회탈 목걸이를 걸어주며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의 활발한 현장 홍보도 펼쳤다.

특히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공연단과의 포토타임 이벤트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앞서 지난 9일 이탈리아를 방문한 권기창 안동시장과 공연단은, 이성호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과 전예진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장을 만나 이탈리아의 한국 입양아 지원단체인 이타코(ITAKO)를 21세기 인문기초포럼에 초청하는 것을 협의했다.

또한 2월 11일(일)에는 베네치아 시의회 세바스티아노 코스타롱가(Sebastiano Costalonga) 경제위원장과 마시모 안드레올리(Massimo Andreoli) 카니발 축제위원장을 만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의 가면 공연단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준길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반드시 천년고도 경주에!!

꿈나무야성

#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50만원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참가규모 88팀(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월 20일** (입금자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행사장소** : 경주더케어 호텔 2층 거문고실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 담당 010-4473-4473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 탠런트 이영범 | 가수 소명 | 탠런트 최용준



가수 백봉기 | 가수 신비 | 가수 권드

대구  
광역시  
일보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우승 준비이런 남성 풀세트
- 여자우승 준비이런 여성 풀세트
- 남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시상내역

- 여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남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니어 준비이런퍼터
- 여자 니어 준비이런퍼터